

주간 중국 창업 제 304 호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 +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

목록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 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01

WEEKLY

뉴스

2022 중국 디지털도시 경쟁력 연구 보고서	P1
차이나유니콤과 텐센트 합작 회사 설립	P3
제 21 회 중국인터넷컨퍼런스, 디지털 경제 발전 강조	P6

02

CHINA

창업

【지역분석】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P10
【산업정책】 선전시 소프트웨어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 발표	P17
【기업분석】 올해 상장한 2 개 청두 혁신 기업 소개	P22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P27

03

KIC 중국

뉴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 가	P30
성황리에 개최	
중관춘포럼 한중메타버스국제기술컨퍼런스 연기 공고	P34

WEEKLY 뉴스

1. 2022 중국 디지털도시 경쟁력 연구 보고서 — 평파이뉴스(澎湃新闻)

CCID Consulting(赛迪顾问)은 11 월 8 일 <2022 년 중국 디지털 도시 경쟁력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 기반 ○도시 거버넌스 ○민생 서비스 ○산업 경제 ○기술 혁신 ○저탄소 발전 6 가지 측면에서 정량 평가를 거쳐 2022 년 디지털도시 100 위를 선정했다. 상위 5 대 도시는 1 위부터 순위별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충칭이었다.

디지털도시 리스트 (1 위~30 위까지 소개)			
순위	도시명	순위	도시명
1	베이징시(北京市)	16	우쑤시(无锡市)
2	상하이시(上海市)	17	동관시(东莞市)
3	선전시(深圳市)	18	정저우시(郑州市)
4	광저우시(广州市)	19	푸저우시(福州市)
5	충칭시(重庆市)	20	닝보시(宁波市)
6	항저우시(杭州市)	21	창사시(长沙市)
7	칭다오시(青岛市)	22	구이양시(贵阳市)
8	청두시(成都市)	23	다리엔시(大连市)
9	텐진시(天津市)	24	웨이하이시(威海市)
10	쑤저우시(苏州市)	25	옌타이시(烟台市)
11	우한시(武汉市)	26	타이저우시(台州市)
12	시안시(西安市)	27	하얼빈시(哈尔滨市)
13	난징시(南京市)	28	허페이시(合肥市)
14	선양시(沈阳市)	29	포산시(佛山市)
15	지난시(济南市)	30	샤먼시(厦门市)

디지털 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 정부 서비스, 민생 서비스, 경제 발전 등에서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를 개선하고 디지털로 나타내며, 데이터 자원을 사용하여 도시를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건설부터 디지털 가치의 점진적인 보급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도시 건설은 협업 추진기(2012 년~2015 년), 자원 통합기(2016 년~2020 년), 전면적 활용기(2021 년 이후)를 거쳤다. 협업 추진기에 디지털 도시 건설은 주로 국가 유관부서의 주도하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퓨팅 등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자원 통합기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시기로 도시 빅브레인, 도시 운영 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며 자원 통합, 정부 개선, 신형 산업 협동 발전을 실현했다. 전면 활용기에는 디지털 도시 가치가 점차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2022 100 강 목록에 들어간 디지털도시 지역별 분포 수량	
디지털도시 수량	지역명
12	장쑤(江苏), 산둥(山东)
8	광둥(广东), 저장(浙江)
6	푸젠(福建),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5	안휘(安徽)
4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씨(江西)
3	쓰촨(四川)
2	귀저우(贵州), 헤룽장(黑龙江), 랴오닝(辽宁), 내몽구(内蒙古)
1	베이징(北京), 간쑤(甘肃), 광씨(广西), 하이난(海南), 지린(吉林),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산시(山西), 산시(陕西),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신장(新疆), 윈난(云南), 충칭(重庆)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 100 강 목록에 오른 디지털 도시는 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역 분포로 보면 화동 지역이 100 강 도시 수량이 가장 많은 1 위를 차지했으며 총 48 개 도시가 목록에 포함되었다. 성(省) 행정구역 분포로 보면 장쑤성(江蘇省)과 산둥성(山東省)이 12 개 도시로 공동 1 위, 광둥성(廣東省)과 저장성(浙江省)이 8 개 도시로 공동 2 위를 차지했다.

정보 기반 분야에서 화동 지역과 서남 지역의 건설 수준이 전국 선두였고, 도시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화동 지역이 가장 높고 서북 지역이 가장 낮았다. 민생 서비스 분야로 보면 중남부, 화북, 동북 지역의 건설 성과가 뚜렷했다. 산업 경제와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화북 지역과 베이징, 텐진의 도시 디지털 업그레이드와 기술 혁신 반영 성과가 두드러졌다. 저탄소 분야에서는 서남 지역이 지리 환경적 천혜의 장점을 기반으로 저탄소 발전을 전국 선두 수준까지 도약했다.

1 인당 디지털화 투입이 많을수록 디지털 건설 효과가 현저해진 도시로는 베이징, 충칭,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이 있고, 이러한 도시는 새로운 정보 인프라 건설 규모가 지속해서 커짐과 동시에,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 교체 속도와 높은 데이터 응용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뚜렷한 기술 중첩 효과를 보인다는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 <보고서>는 기술 혁신 주체 지수와 과학 기술 성과 전환 지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기술 혁신 상위 100 대 도시 중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는 기술 혁신 주체와 과학 기술 성과 전환 지수가 월등히 앞서 있었다. 이 양대 대도시는 주요 기술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혁신 환경 최적화는 물론 혁신 정책 배치, 인재 양성 메커니즘 등에서도 균등하게 체계적인 배치와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해 도시 디지털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넓혔음을 알 수 있었다.

2. 차이나유니콤과 텐센트 합작 회사 설립 — 징바오왕(京报网)

1) 합작 회사 설립 내용

10 월 27 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법집행 2 사에서 '기업 승인 목록'을 통해 차이나유니콤혁신창업투자유한공사(联通创新创业投资有限公司, 이하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와 선전시텐센트산업창업투자유한회사(深圳市腾讯产业创投有限公司, 이하 '텐센트 산업투자')의 신규 합자회사 설립 승인을 발표했다.



사진 1) 출처: 징바오왕(京报网)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과 텐센트 산업투자 사이에 새로 설립된 합작 회사는 CDN*과 에지 컴퓨팅* 사업을 위주로 하며,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 텐센트 산업투자, 관련 직원 지분 보유 플랫폼이 각각 신설 법인의 지분을 48%, 42%, 10% 보유하게 된다.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 텐센트 산업투자는 합자 법인을 공동 경영하게 된다.

(*CDN 편집자 주: Contents Delivery Network, CDN 이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용량이 크거나 사용자들의 요구가 많은 콘텐츠를 여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POP(Point Of Presence)들에 설치한 CDN 서버에 미리 저장해 놓고, 콘텐츠 요구 발생 시 가장 최적의 CDN 서버로부터 신속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에지 컴퓨팅 편집자 주: edge computing, 네트워크 가장자리(에지)에서 먼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의미로 중앙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edge)이나 단말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대비되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줄일 수 있어 보안성이 뛰어나다. 데이터 양이 많고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대거 활용될 전망이다.)

회사명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	텐센트 산업투자
설립일	2014 년 4 월 29 일	2019 년 9 월 17 일
등록 자본금	100 억 위안	6 억 위안
주주	차이나유니콤(中国联合网络通信有限公司) 100% 지분	텐센트산업투자펀드(深圳市腾讯产业投资基金有限公司) 100% 지분
주사업 분야	자체 자금을 통한 투자	창업투자, 기업관리 컨설팅, 투자 컨설팅

2) 합작 이전 과정

2017 년 차이나유니콤 그룹은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범 기업으로 개혁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쑤닝을 등 중국 내 13 개 사의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

(*혼합 소유제 개혁 편집자 주: 국유 기업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해 국유기업의 경영 능력과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차이나유니콤은 이러한 전략적 투자자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홈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매 시스템, 금융 결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합작을 계획했다.

텐센트는 2022 년 중반 보고서에서 자회사 선전시텐센트신다유한파트너회사를 통해 차이나유니콤의 지분 5.2%를 보유해 차이나유니콤의 4 대 주주가 되었음을 알렸다.

3) 향후 전망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 시장에서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의 2021 년 시장 점유율은 약 10~15%였으며 텐센트 산업투자는 약 0~5%로 양방의 점유율을 합치면 10~15% 정도가 된다.

신설 합작회사의 주 사업 분야인 CDN 서비스 시장에서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의 2021 년 시장 점유율은 약 0~5%, 텐센트 산업투자의 점유율은 약 5~10%로 신규 합작회사의 예상 점유율은 0~5%이며, 유니콤 벤처캐피탈·텐센트 산업투자·합작 회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5~1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에지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는 텐센트 산업투자만이 약 0~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신규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0~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나유니콤은 디지털 경제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요구에 따라 자회사인 차이나유니콤 벤처캐피탈과 텐센트 산업투자와의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와 에지 컴퓨팅 비즈니스에 종사하며, 자체 연구 개발에 입각하여 완전한 CDN/MEC 플랫폼 기능, 운영 기능, 제품 혁신 기능을 갖추고자 한다. 합자 회사는 장기적으로 차이나유니콤과 텐센트 양자의 장점을 증대시킬 것이며 CDN 과 에지 컴퓨팅 산업 체인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텐센트 등 주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중국 정부의 전조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텐센트 또한 차이나유니콤의 장기 전략적 투자자로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난해 차이나유니콤 류례홍(刘烈宏) 회장은 향후 최소 3 개 메인 사업은 CDN, 에지 컴퓨팅 사업과 연관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텐센트의 클라우드 사업을 맡은 텐센트 클라우드는 첫 5G 에지 컴퓨팅 센터인 티 블록(T-BLOCK)을 공개하며, 전국적으로 에지 컴퓨팅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차이나유니콤과 텐센트의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동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협력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신형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제 21 회 중국인터넷컨퍼런스, 디지털 경제 발전 강조

— 중국인터넷컨퍼런스 공식 사이트

2022 년 제 21 회 중국인터넷컨퍼런스가 11 월 15 일부터 17 일까지 선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디지털 경제 발전, 디지털 문명 촉진"이었다.



사진 1) 출처: 중국인터넷컨퍼런스(中国互联网大会) 위챗 계정

1) 중국인터넷컨퍼런스 소개

중국인터넷컨퍼런스는 산업정보화부, 선전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중국인터넷협회, 광둥성통신관리국, 선전시 산업정보화국, 선전시 디지털기술응용협회가 주관한다.

중국인터넷컨퍼런스는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유명한 연례 산업 컨퍼런스로 2002 년 처음 시작하여 21 회까지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규모와 전문성, 가치를 지닌 인터넷 전문 행사가 되었다. 지난 20 회에는 400 명 이상의 정부 부처 지도자, 아카데미 회원, 국내외 산업 전문가,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300 개 이상의 미디어가 보도했으며 현장 참관한 관람객 수가 32,000 명 이상이었다.

2) 21 회 행사 개최

컨퍼런스는 '산업계의 풍향계이자 인터넷 사용자의 축제'가 된다는 포지셔닝을 유지하며 '포럼·회의+특별활동'을 위주로 개막포럼, 세부포럼, 테마별 포럼, 사례 발표, 초청 교류회, 온오프라인 문답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다루는 내용 또한 인프라, 인공

지능, 산업인터넷, 커넥티드카,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메타버스, 디지털 정부, 중소기업 발전, 미성년자 보호, 합법적인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보안 등 핫 이슈를 포함했다.

온·오프라인 통합형식으로 진행해 메인 포럼(개회식+개회식포럼), 폐회식, 17 개의 서브 포럼, 4 가지 특색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11 월 17 일 정오 언론에서 보도한 관련 뉴스가 130 만 건, 누적 열람 횟수가 2 천만 회에 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정부 지도자, 학자, 국내외 전문가, 학자, 기업 초청 귀빈 100 여 명이 연단에 오르고, 천 곳 이상의 기관이 포럼과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전시하고, 호혜 합작과 미래 전망에 관해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며 백여 개의 미디어와 생중계 플랫폼이 행사를 보도했다.

주관사 대표인 상빙[尚冰,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 이사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4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둘째 응용을 이끌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심화시키고, 셋째 보안 측면에서의 발전을 유지하고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수준을 개선하며, 넷째 대중이 얻는 만족감을 높여 디지털 경제 발전이 더 많은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장원밍[张云明, 산업정보화부 당원·부부장(副部长)], 정홍보[郑红波, 선전시당위원회 위원·시(市) 인민정부 당원]는 함께 선전시치엔하이인터넷보안보장센터(深圳市前海互联网安全保障中心) 개소를 알렸다. 선전시치엔하이인터넷보안보장센터의 설립은 선전의 정보 통신 산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위에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지역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국제하이테크성과교역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 24 회 중국국제하이테크서과 교역회 우수 조직상'을 수상했다.

폐회식에서는 차이나모바일그룹 정보안전센터와 클라우드센터가 공동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보안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에서 보안 시스템 프레임워크, 규범에 맞는 보안 자격, 보안 운영 관리, 기술 보호 기능,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며 고객이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시키는 데 신뢰를 더 하고, 안전한 모바일 클라우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데이터들을 제공했다.



사진 2) 출처: 중국인터넷컨퍼런스(中国互联网大会) 위챗 계정

또한 중국인터넷협회는 '2021~2022 년 중국 인터넷산업 자율 공헌 및 공익상'을 지정해 특출한 공익 활동을 벌인 기업·기관에 상을 수여했다. 베이징신랑인터넷정보서비스 유한공사 등 81 개 사가 영예증서를 받았다.

3) 인터넷기술&응용엑스포

아울러 11 월 15 일~17 일 선전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iDWF | 2022 인터넷기술&응용엑스포"를 동시 개최하여 '인터넷 산업체인 통합 생태 전시 플랫폼'을 표방하고, 최신 인터넷 과학기술과 응용 사례를 전시하며 인터넷과 전통 산업 간의 심도 있는 융합 발전을 보여주며 인터넷이 실물 경제에 힘을 싣고 있는 바를 체감하도록 했다.

2022 iDWF(Internet Digital World Fair 약칭 'iDWF 인터넷박람회')는 중국인터넷협회가 주최하고 Cenbo(北京森博明德营销管理顾问股份有限公司), Beijing Talent Expo Co., Ltd. (京泰莱特国际会展有限公司)가 주관한다. 전시회 기간 동안 iDWF 인터넷박람회는 전시, 포럼, 특별 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했다.

전시 분야는 종합 전시존, 테마 전시존, 메타버스 전시존, 혁신 전시존의 4 개 분야로 나누어 첨단기술, 디지털 산업 발전 추세와 제품 응용을 선보였다. 전시 제품은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디지털금융, 스마트라이프, 디지털헬스,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기술과 실천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했다.



사진 3) 출처: 중국인터넷컨퍼런스(中国互联网大会) 위챗 계정

2022 iDWF 인터넷박람회는 특별히 NFT 디지털 컬렉션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전시장은 사진, 영상, 음향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신뢰받는 블록체인 추진 목적으로 15 개 기업과 전시조직위에서 선정한 11 개 사의 우수 디지털 컬렉션을 전시했다.

11 월 15 일에는 'iDWF 메타버스 별빛 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출판사에서 맞춤 제작한 출판작의 경진 대회가 열렸다. 영향력 있는 가상 인물상과 상업가치 공간상, 과학 혁신제품 기술상, 메타버스가치 브랜드상, 산업혁신 인물상 등을 수여했다. 또한 주최 측은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DWF 메타버스 50 인 연맹'을 공식 설립했고, 참가 기업 대표들도 <메타버스 디지털 컬렉션 산업 발전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

11 월 17 일에는 '금융인터넷 기술응용 테마포럼'을 개최해 인터넷 최신 발전 동향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술 발전 전망, 리스크 예방, 합법적 거버넌스, 응용 장면과 산업 실천에 관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CHINA 창업

1. 【지역분석】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1)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长三角 G60 科创走廊)이란

G60 국가고속도로와 후쑤호(沪苏湖), 상허항(商合杭)고속철도를 따라 펼쳐진 상하이시 송장구(松江区), 장쑤성 쑤저우시(苏州市), 저장성 항저우시(杭州市), 후저우시(湖州市), 지아쑹시(嘉兴市), 진화시(金华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合肥市), 우후시(芜湖市), 쉬엔청시(宣城市) 9 개 도시를 포함하는, 총면적 7.62 만km²에 달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2016 년 5 월 24 일 건설을 시작한 이후 ‘과학혁신+산업+금융’이 결합된 혁신 역량을 근간으로 삼고, 장강삼각주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할 것을 지향해 왔다.



포지셔닝

- ▶ 중국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가는 선진 회랑
- ▶ 과학과 제도 양 바퀴로 구동되는 시범 회랑
- ▶ 산업과 도시 융합 발전의 모범 회랑

2) 관련 정책

2021 년, 국가 ‘제 14 차 5 개년 계획’과 <2035 년 비전 목표 개요>에서 다시금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건설을 가속화하여 장삼각지구의 글로벌 자원 배치와 전파 역량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상하이 저장 장쑤 안휘 3 성 1 시의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에 관한 지원	
상하이	<'제 14 차 5 개년 계획' 개요>에서 G60 과학혁신회랑 등 범지역 합작 플랫폼 작용을 분명히 발휘하고, 과학과 제도를 혁신의 동력으로 강화 계획
장쑤성	<2022 년 장쑤성 정부업무보고>에서 장삼각 혁신 공동체 건설 추진, G60 과학혁신회랑 협동 구축 지적
저장성	과기청에서 <G60 과학혁신회랑(저장성 부분)건설 실행 계획>개선
안휘성	개혁위원회 <안휘성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건설 추진 시행안> 통과

3) 경제 성과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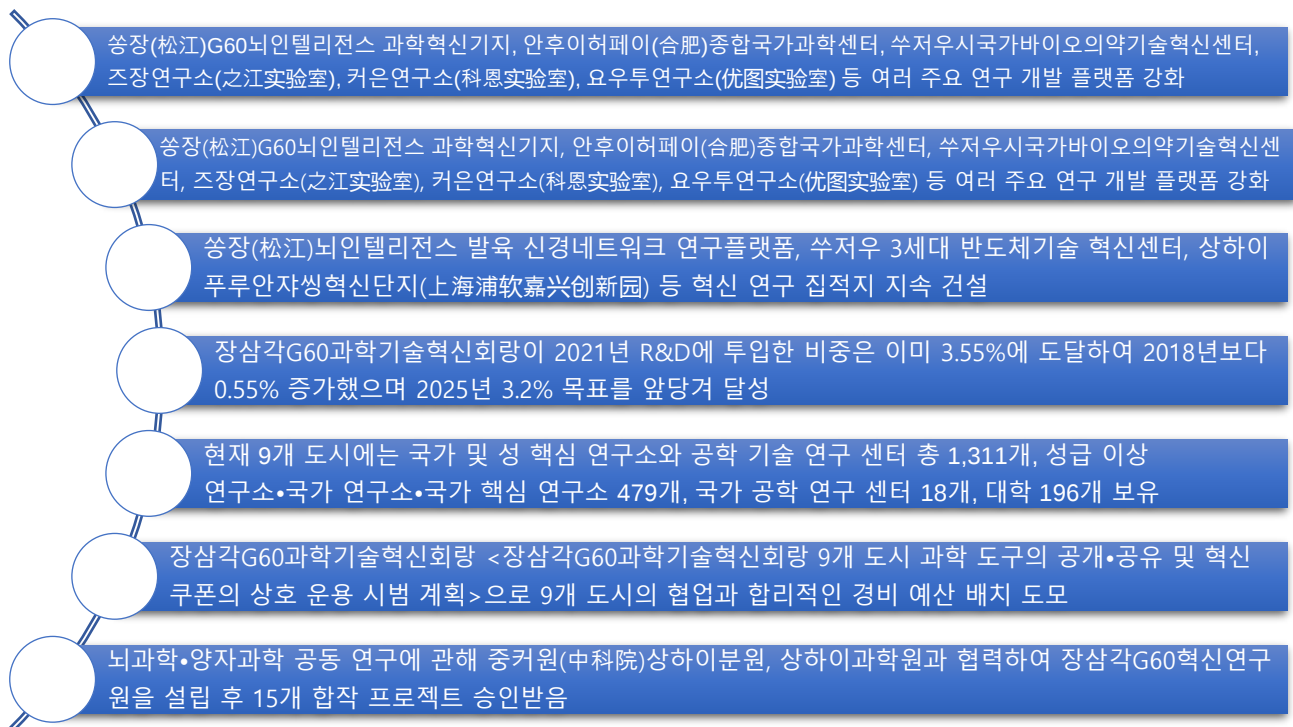
4) 과학 혁신 성과

- 장삼각 G60 과학기술혁신회랑 9 개 도시의 R&D 가치 3.25% 도달
- 특허 및 수권 총량 40 만 건으로 동기 대비 50% 증가

- PCT 특허 신청량 7,206 건, 동기 대비 63.9% 증가
- 9 개 도시 국가과학기술상 획득 항목 48 개, 이 중 6 개 항목은 1 등상
- <2021 중국도시과학혁신실력연구보고서>에서 9 개 도시 중 4 개 도시가 전국 10 대 과학혁신 선두 도시에 등극하며 장삼각주에 강력한 과학혁신 산업클러스터와 혁신 추세 형성

5)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발원지로 발전

① 고급 혁신 플랫폼 공동 구축



② 핵심 기술 자체 개발

- 12 인치 대형 실리콘칩, 포토레지스트, 인조 태양, 초중력 시뮬레이션 원심 실험 장비, 신형항공엔진, 양자통신[지우장(九章)양자컴퓨터], CR9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 중국 최초 독자 개발한 항생제 캐리마이신(Carrimycin) 등
- 2021년에는 발명 특허 60,000 건

③ 전략적 신흥 산업 혁신 주체 육성 및 집결

과학기술 혁신 생태를 개선하고, 첨단기술기업 2.9 만여 사를 집결, 각 지역 창업인큐베이팅공간 1,300 여 개, 국가급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 339 개 사

송장(松江区)	과기햇불센터 G60 데이터경제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국가 시범지 건설
지아싱(嘉兴市)	중국에서 최초로 성급 이상 광역권 과학기술산업단지 계획
항저우(杭州市)	화웨이 인공지능(昇腾)컴퓨팅센터
진화(金华市)	과학기술포상제도(揭榜挂帅)*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 메커니즘 수립
쑤저우(苏州市)	국가 차세대인공지능혁신발전시범구•국가 3 세대혁신센터 승인 획득
후저우(湖州市)	과학기술발전그룹 수립
쉬엔청(宣城市)	장삼각 우주항공과학기술 JMRH 산업발전시범구 건설
우후(芜湖市)	시(市) 품질개선 발전전문기금 설립
허페이(合肥市)	과학기술혁신 조례 발표

(*지에방과시(揭榜挂帅) 편집자 주: 과학기술포상제도. 과학연구성과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일종의 과학연구비 투자제도)

④과학기술 자원 개방 공유로 성과 전환 촉진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과학기술성과전환펀드 설립, 총규모 100 억 위안, '자금 투자 촉진, 오프라인 로드쇼 경매, 온라인 매칭'의 3 단계 추진 메커니즘 확립
9 개 도시에 500 개 프로젝트 첫 배치
9 개 도시에 G60 과학기술성과전환 시범기지 11 곳 설립
G60 과학기술성과 경매행사 4 회 연속 개최, 4 회때 총 거래액 50 억 위안 초과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연구센터 실질 운영
G60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조직해 233 명의 학자[원사(院士) 60 명 포함] 집결
9 개 도시의 인구 만 명당 발명 특허 건수/국가 수준의 공학 연구센터 수/핵심 연구소 수는 상위 10 위권 중 선두 위치
장삼각 G60 과학기술혁신회랑 전체 사회의 R&D 투자는 뉴욕 도시권, 로스앤젤레스 도시권, 시카고 도시권보다 높으며, 산학연 협력은 일부 국제 과학기술혁신 회랑과 비슷한 수준
'G60 과학기술혁신 클라우드(G60 科创云)' 만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쿠폰 온라인 업무와 제도 성과를 출산하여 선보임

6) 산업체인 협력과 산업클러스터 공동 구축

①전략 산업 집적 성과 9 개 도시에서 1 차로 100 개 근간 기업 육성, 이어 400 개 이상의 기업 후보군 육성	②집적회로 산업: 설계·제조·포장·테스트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 형성, 생산액 전국의 1/5 이상, 바이오의약산업: 다국'1+7+N*' 산업연맹 건립 G60 산업(단지)연맹을 15 개까지 증가
--	--

전략형 신흥산업 분야에서 1,826 개의 선도 기업 집결, 2021 년 생산액 4 조 위안 육박	- 태양에너지협력 혁신산업연맹·'전정특신'중소기업협력연맹 설립 - 산업체인 핵심기술 공략 리스트 발표
③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G60 스타체인 계획 실시 - G60 호, 송장호 등 6 대 다중미디어위성 성공 발사 - 완전 디지털화된 위성 제조 초대형 공장 건립 - 산업정보화부 직속 단위와 G60 산업 인터넷 통합 발전에 관해 공동 연구 - G60 산업인터넷 벤치마크형 공장·산업단지·플랫폼·전문 서비스사 84 곳 선정	④품질 기준 도달 강화 -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품질 기준 포럼 개최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품질 기준 평가지수 시스템 연구 보고서>발표 -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품질관리관 훈련코스 시행 9 개 도시 기업이 주최하거나 참여하여 국가 표준 506 항목과 산업 표준 426 항목 제정
⑤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산업 협력 혁신센터 건설 가속화 - 저장과학혁신기지 1 기 준공,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유치 중 - 안휘성과과학혁신단지 1 기 7 만㎡ 오픈 - 진화(상하이)과학혁신센터 연구개발 성과 나타나는 중 - 쉬엔청(상하이)과학혁신센터 순조롭게 완공 - 우후산업혁신센터 1 기 계약	

(*1+7+N 편집자 주: "1"은 쑤저우 산업 단지에 기반하여는 산업 단지 연맹을 설립, "7"은 집적 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고급 장비, 신에너지, 신재, 신에너지차 산업 동맹. "N"은 기타 세부 분야의 연맹을 뜻함.)

7) 금융 정책

①자금 지원 정책

- 중양은행이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선진제조업 고품질 발전 종합 서비스안>에서 밝힌 금융지원 정책 시행
- G60 과학혁신대출(G60 科创贷-한 번에 5 천만 위안까지 신용 대출 가능), 묶음 대출(批次包) 등의 과학기술 전문 금융상품 시행
- 장삼각 채권 시장을 출산 집행하고 지역을 넓혀 창업 혁신 전문 대출로 시행
- 쌍창채권(双创债)* 누적 35 건 발행, 215.9 억 위안 융자, 동기간 전국에서 발행한 총규모의 1/6 에 해당

(*쌍창채권 편집자 주: 双创债, 조건에 부합하는 혁신창업기업 및 벤처캐피탈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말하며, '혁신창업회사채'라 한다)

②다층위의 자본 시장 서비스 강화 • 상하이증권거래소 자본 시장의 G60 과학 혁신회랑 기지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9 개 도시의 커창반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평가와 가이드 정례화하여 시행 • <커창반백서 2021>발행, G60 커창반기업 가연맹 설립 • 상하이증권거래소 종합 지수에서 G60 혁신종합지수를 공시하고, 전략형 신흥산업 지수를 제고, ETF 상품 출시 및 펀드 증가 성공	③전방위적으로 금융의 종합적 지원 역량 강화 • 은행, 증권상, 기금, 신탁 등 368 개 금융기관이 모인 G60 금융서비스연맹 설립 • G60 산업 금융 결합형 고품질 발전 시범구 13 곳 건설 • G60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에서 자금조달 수요 2.69 만 건 해결, 신용 융자 총 1.7 조 위안 이상
--	---

8) 국제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 공동 구축

①높은 효율의 정부 행정 서비스 생태계 구축 •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협력센터 설립, 9 개 도시 시장감독 부분이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지식재산권 통합 발전 협력계약> 체결 •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 비즈니스환경 거버넌스 포럼 공동 개최, G60 거버넌스 연구센터 공동 설립 • 9 개 도시 범통용 기업 세금 관련 업무 확대 • 9 개 도시에 G60 '온라인 원스톱' 전용 창구 관리규범 보급	②고급 인재 발전 생태 구축 • 9 개 도시의 인재 승인 기준과 절차 통일, 2021 년 9 개 도시의 해외 고급 인재 수량은 2018 년의 3 배로 증가, 2022 년 7 천 명 이상으로 예측, 전문 기술인력 1,190 만 명 초과 • '산업단지+세터+포럼+교육'이 융합된 업무 시스템 수립 • 국가 이민정책실천기지를 만들어 <장삼각 G60 과학혁신회랑이 추천한 외국 국적 인재에 대한 영주 승인 관리법> 실시 • 산업 인재 협력 센터 건설 • G60 인재포럼 순회 개최, 9 개 도시에서 장삼각 통화 발전에 관한 포럼과 전문 연수 행사 개최 • 국가급 인재 1,000 여 명 집결, 아카데미 회원(院士)전문가 업무스테이션 547 곳• 포스트박사 업무스테이션 771 곳 구축
---	---

③개방적인 국제 협력 생태 구축

- 제 4 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G60 고품질발전요소 매칭회 개최
- 2021 년 9 개 도시에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수량 4,723 개, 신규 증가 외자기업 등록 자본금 356 억 달러, 첨단 기술 상품 수출입 금액 2314 억 달러, 서비스 무역 총액 동기 대비 24.2% 증가
- 상하이 서부 5 개 구와 9 개 도시가 과학기술혁신 협력 전개
- G60 무역 고품질 발전을 위한 연구 적극 전개
- 중국-유럽을 잇는 일대일로 열차 노선 3 개 건설[쑤저우노선(苏州线), 이우노선(义乌线), 허페이노선(合肥线)]
- G60 러시아 원사 혁신기지 건설

2021 년 장삼각 G60 과학기술혁신회랑이 국가 '제 14 차 5 개년 계획'과 '2035 년 비전 목표 개요'에 포함되며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출처:

1.상관(上观) 长三角 G60 科创走廊 2021 年度工作总结及 2022 年重点工作任务

2.중국경제도보(中国经济导报) 长三角 G60 科创走廊: 多年磨一“剑”, 创新策源优势直追国际水平

2. 【산업정책】 선전시 소프트웨어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 발표

1) 정책 배경 — 과학 도시 선전

ChinaDataPay(数据宝)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20 년 과학기술 기업 총시장가치를 도시별 순위로 표시했을 때 선전이 1 위를 차지했다.



사진 1) 출처: 소후왕(搜狐网)

그중 선전에 소재한 과학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은 10 조 6,399 억 9,500 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96% 증가했다. 2 위인 베이징시의 시가총액은 8 조 4,842 억 9,200 만 위안, 3 위인 상하이시는 6 조 6,707 억 9,000 만 위안이었다.

이로써 선전은 과학기술 기업의 시가 총액이 10 조 위안을 돌파한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베이징의 1.25 배, 상하이의 1.7 배, 광저우의 7 배가 된다.

수도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도시 과학기술 혁신 발전 보고서 (2021)>에서도 선전시가 도시 과학기술 혁신발전지수 0.774 를 기록해 베이징에 이어 2 위를 기록했다.

선전은 5G,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공학, 스마트 홈,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의 산업에서 모두 세계 최전선에 있으며, 화웨이, ZTE, 텐센트, DJI, BYD 와 같은 정상급 하이테크 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선전시 정부는 이러한 선전의 강점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정책 통지(국무원 2020 년 발표)>, <‘제 14 차 5 개년 계획’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통지(산업정보화부 2021 년 발표)>에 이어 이번 <선전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며 선전시의 소프트웨어&정보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디지털경제 혁신 발전 시범구’와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대표 도시’가 되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했다.



사진 2) 출처: 선전특구보(深圳特区报) 올해 8 월 선전에서 열린 제 10 회 중국전자정보박람회 현장

2) 정책 내용

<선전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조치'라 칭함>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 시스템, 산업 공간 레이아웃 최적화, 시장 플레이어 육성 및 강화, SW 응용 지원 확대, 재정 보증 강화를 포함한 7가지 측면에서 20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했다. 선전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특별 재정 기금을 마련하고 자금 규모를 배로 늘려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산업 중점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함	
1.핵심 SW 공약에 집중	차량 탑재 모바일 디바이스 매입형 SW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복구 및 보안 지원, 제조업 대상 컴퓨터 지원 설계 자동화 및 제어 SW 지원, 광통신, 광 컴퓨팅, 양자 정보, 머신 인텔리전스 등 첨단분야 SW 기술 연구 개발
2.신흥 플랫폼 SW&산업 범용 SW 배치 강화	신기술 플랫폼 SW 중점 지원, 새로운 경량화된 플랫폼 개발, 금융 핵심 업무시스템 ·건축과 도시 정보 모델링·에너지 및 교통 스마트 관리·스마트 의료 SW 지원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3.기술 공략 프로젝트 실시	프로그램 사용자인 대학과 협력해 SW 핵심기술 연구 시 최대 3 천만 위안 보조, 시 정부 승인 프로젝트의 경우 총투자금 투입 후 전액 보상, 조건 부합 프로젝트의 경우 천만 위안 이내에서 총투자자의 50% 지원, 기초 SW 산업 SW 분야에 자금 배치
4.공공기술 서비스 플랫폼 지원	오픈소스 커뮤니티 테스트 플랫폼 AI 개방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적격 신규 플랫폼에 대해 총투자금의 50%를 2 천만 위안 이내에서 보조. 적격 기존 플랫폼인 경우 작년 승인 운영비의 20~40%를 최고 500 만 위안 이내에서 지원. 높은 활용도의 오픈 소스 SW 개발 기업에 최고 300 만 위안 상여금 지급
5.생태혁신 보육 플랫폼 구축	생태계 내의 주도 기업이 파트너들과 핵심 기술 생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
6.지식재산권 배치·보호 강화	발명 특허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신속 처리, SW 정품 사용 촉진, 지식재산권 홍보와 보호 강화
7.혁신 창업에 좋은 분위기 조성	'선전시 1024 프로그래머의 날*' 시리즈의 캠페인. '오픈소스 캠퍼스' 이벤트 전개, 적격 프로그램에 대해 총투자금의 50%를 최고 300 만 위안 내에서 지급
SW 산업 발전 공간 레이아웃 최적화	
8.높은 기준의 핵심 소프트웨어산업단지 건설 계획	선전시 '20+8' 산업클러스터와 선전시 디지털경제 핵심구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집중 건설
9.국가 성 시 유명 소프트웨어단지 시스템 구축	국가급 성급 시급 유명 소프트웨어단지(기지)에 500 만 위안, 300 만 위안, 200 만 위안의 상여금을 1 회 지급, 국가급 성급 시급 우수 소프트웨어단지(기지)에 150 만 위안, 100 만 위안, 50 만 위안 상여금을 1 회 지급. 각 소프트웨어단지 내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임대 보조금 지급, 신규 입주 SW 기업에 3 년간 50% 이상의 임대 보조금 지급
SW 인재 집적 효과 강화	
10.SW 인재 육성 강화	국가가 인정한 SW 인력 양성 대학에 재정 지원, 산학연 협력하여 산업 지식과 정보 기술에 모두 능한 복합형 인재 양성, 적격 프로젝트에 총투자금의 50%를 천만 위안 이내에서 지급
11.SW 인재 유치 강화	국내외 고급 인재팀이 창업하여 핵심 SW 을 공략할 경우 1,000 만 위안~1 억 위안의 자금 지원. 외국 SW 인재 취업을 위한 원스톱통합 서비스 제공, 국제 인증 자격을 지닌 적격 인재에 대해 주택 의료 자녀 입학 등의 혜택 제공

시장 플레이어 육성·강화	
12.SW 기업 핵심 역량 강화	<선전시 중점 SW 기업 명단>을 업그레이드하며 SW 기업 지원 확대, '전정특신'과 '유니콘' 분야에서 SW 기업 육성 가속화. SW&정보 서비스 기업의 영업수익이 10 억 위안, 50 억 위안, 100 억 위안 첫 돌파 시 50 만 위안, 150 만 위안, 300 만 위안 상여금 지급. 연간 영업수익과 성장률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영업이익 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단계별 포상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13.고급 기술의 중국 내 유치와 중국 SW 해외 시장 진출 병행 가속화	자체핵심기술을 지닌 기초 SW 와 산업 SW 기업 본사 R&D 기관 업계 선두 기업 포함, 품질 테스트 기관 투융자기관 인력배양 기관 법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기구 적극 유치. 입주 기업 기관에 최고 5 천만 위안 지원금 제공. SW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 마케팅 운영 서비스 시스템 지원
14.SW 기업 브랜드 품질 표준 제고	국내외 산업 인증과 표준을 지닌 기업에 최고 50 만 위안, 국가부처 수상 기업 프로젝트에 최고 50 만 위안 지급. SW 분야 산업·지역별 표준 획득 기업에 10 만~50 만 위안 차등 상여금 지급
응용 지원 확대	
15.정보기술 응용 혁신 SW 활용 확대	정보기술 응용 혁신 제품 표준을 제정하고 '선전혁신라이브러리(圳创库)'를 정기적으로 발표. SW 제품 전시 센터와 SW 라이브러리 구축. 국유기업 교육 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SW 응용 시나리오와 개방 확대
16.오픈소스 SW 응용 확대	일정 규모 응용에 도달하고 국제적으로 오픈소스 영향력이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판매액의 30%, 천만 위안 이내에서 보조금 지급. 개발 생산과 직결되는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기업 구매용 SW 및 단말기 중 자격이 부합되는 경우 구매액의 30%, 최대 천만 위안 이내에서 지원금 지급
17.산업용 기업 SW 응용 수준 제고	SW 시범 프로젝트에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개발 업그레이드 적합도 테스트 인건비 등 투입에 대해 최대 천만 위안 이내에서 지원. 응용 SW 클라우드 서비스와 로우 코드 제품 홍보 지원, 구매액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승인된 구매액의 3~10% 범위, 최대 500 만 위안의 자금 보조
18.인공지능 SW 응용 확대 촉진	인공지능 시범 응용 프로젝트가 기술 수준 시장 전망 효과 면에서 인정받을 경우 승인된 총투자금의 30%, 최대 천만 위안의 자금 지급

19. 첫 출시 SW 보급 활용 촉진	<선전시 첫 출시 소프트웨어 응용 확대 가이드 목록>을 제정 업그레이드. 적격 첫 출시 SW에 대해 승인된 판매액의 30%, 최고 천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안전 보험 개발을 장려하여 초기 시장 병목 현상을 제거, 적격 투자보험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보험료 비율에 따라 최고 300 만 위안 지급
자금 보장 확대	
20. 전면적으로 자금 지원 확대	'선전시산업 SW(기초 SW)펀드' 설립, 클라우드 SW 서비스 세금우대 정책 탐색, 선전시 중점 SW 기업을 대출 보상 대상으로 삼고 적격 기업 지원. 상장 지도 및 상장한 기초 SW 산업 SW 오픈소스 상업화 SW 기업에 최고 400 만 위안 지급. 지식재산권 담보 지식재산권 증권화 등 SW 기업을 위한 우수 금융서비스 장려
보충	• 우대 조치를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고,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누적 지원금 규모는 승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22 년 10 월 15 일부터 5 년간 시행

(*1024 프로그래머의 날 편집자 주: 1024 程序员节. 1024 는 2 의 십 제곱 수로, 이진법의 기본 계량 단위 중 하나다. 프로그래머가 야근, 주말 작업을 하는 상황이 많아 일부 인터넷 기관은 10 월 24 일을 프로그래머의 날로 지정해 이날만큼은 야근을 하지 않도록 했다)

상기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대거 지원하는 규정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 기금의 인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기관, 산업 선두 기업의 자본 투입을 이끌어 내고 선전시 산업 소프트웨어와 기초 소프트웨어 기금을 설립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

*출처:

1. 중국자오상왕(中国招商网) 2021 中国城市科创指数排名：北京第一，深圳第二
2. 소후왕(搜狐网) 中国科技十强城市，深圳力压北京、上海，宁德和连云港成功上榜
3. 신량재경(新浪财经) 科技公司总市值排行榜：深圳涨破十万亿 排名全国第一
4. 선전특구보(深圳特区报)深圳出台推动软件产业高质量发展政策打造“国际软件名城”
5. 선전시정부사이트 www.sz.gov.cn 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推动软件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的通知

3. 【기업분석】 올해 상장한 2 개 청두 혁신 기업 소개

1)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成都欧康医药股份有限公司)

회사명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 成都欧康医药股份有限公司	설립일	2010-01-22
분야	약품 연구 개발&실험	상장교역소	베이징증권거래소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成都欧康医药股份有限公司)는 청두오우캉즈화과기유한회사(成都欧康植化科技有限公司)가 전신이며 천연비타민 P 제품 연구와 생산에 종사한 지 20 년이 넘는 기업이다.

①기술소개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 는 천연 비타민 P 식물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전문화된 재배부터 추출, 정제, 합성, 운용을 시행하는 천연 비타민 P 전문 기술 기업이다. 천연 비타민 P 유형에 속하는 원료와 약, 건강 제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여 유럽, 미국, 일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천연 비타민 P 유형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 는 향후 수십년의 노하우를 집결하여 최고의 천연비타민 P* 제품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천연 비타민 P 운용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비타민 P 편집자 주: 비타민 P 는 감귤류 색소인 플라보노이드를 총칭하는 화합물이다. 메밀에 함유된 루틴 외에 헤스페리딘, 시트룰린, 퀴서틴 등이 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꼭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귤, 레몬, 오렌지, 포도, 살구, 체리, 메밀 등에 포함되어 있다. 귤이나 오렌지를 돌려싸고 있는 얇은 막에 비타민 P 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먹으면 비타민 C 와 P 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P 는 결합조직인 콜라겐을 만드는 비타민 C 의 기능을 보강하여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순환을 촉진하고 항균작용을 한다. 모세혈관은 조직이 영양소와 산소를 주고받는 곳이기 때문에 알맞은 투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비타민 P 는 투과성이 지나치지 않도록 억제한다. 운동 상해로 일어나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구강포진, 낮은 세럼 칼슘과 장기 출혈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부족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해 혈액속의 단백질이 배어 나오거나 출혈이 되기 쉬우며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진다. 또한 비타민 P 에는 모세혈관의 수축작용, 혈압강화작용도 있다. 고혈압의 예방과 뇌출혈 등 출혈성 질병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②품질 시스템



사진 1) 출처: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 홈페이지

▶원료: GAP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식물 원료(감귤, 파고다 자포니카, 황벽 등) 육종 재배 기지를 구축하고 각 원료에 대해 농약 잔류물 및 중금속을 모니터링한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원자재 공급망 또한 원재재 공급 품질과 수량을 보증하고 생산과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공장: 공기와 수질이 우수한 청두 충라이시(邛崃市) 청두의약식품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30,000 m²에 한 라인에서 5,000T 을 추출할 수 있는 생산 라인 1 대, 1,000T 을 정제할 수 있는 생산 라인 3 대, 800T 을 합성할 수 있는 생산 라인 2 대를 갖추었고 혼합 작업장과 완제품 작업장이 있다. 공장은 CGMP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었으며 EUGMP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운행된다.

▶창고: 총면적 4000 m²의 자체 원료 창고, 완제품 창고, 부가 재료 창고를 갖추 EUGMP 요구 사항에 따라 배치 관리한다. 각 창고에는 테스트 대기존, 합격품존, 불합격품존이 있으며 완제품존은 반환존과 회수존으로 구분되며 모두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 하며 엄격히 관리한다.

▶운영 관리: 공장은 EUGMP, CGMP, ISO9001-2015, ISO22000, HACCP, KOSHER, HALAL, SC 등의 인증을 통과했으며 식품·의약품의 생산 및 운영에 대한 해당 품질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한다. 주요 제품은 유럽, 미국, 중국의 CEP, DMF, ND 에 등록되었다. 회사는 감

귤류 과일 제품인 헤스페리딘, 루틴 및 고삼 제품인 퀘르세틴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 표준의 초안 작성 및 제정 기관이다. 800 m² 면적의 QC 센터는 EP, USP, BP, JP, CP 및 기타 표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GxP 컴퓨터 시스템 안전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된다.

③연구 개발

Chengdu Okay pharmaceutical company(成都欧康医药股份有限公司)는 Citrus 함유 과일과 Sophora japonica 를 기반으로 천연 비타민 P 제품 개발을 계속 심층 수행하며, 고객에게 다양한 고품질 제품과 제품 응용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 R&D 팀은 현재 제품의 실시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생산 프로세스의 안정성과 개선을 보장한다. 유명 과학 연구 기관과 외국 R&D 기관과 제품의 심층 개발 및 실험에서 협력하고 있다. 200 m² 전용 테스트 작업장을 갖추고 기술 실험 공정을 확대하고 산업화 대량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④제품: 3 대 분야에서 20 여 종

감귤류 추출물 시리즈(枳实系列), 회화나무 꽃 건조물(Sophora japonica)시리즈(槐米系列), 종합추출물 시리즈

2) Beoka(倍益康)

회사명	Beoka 四川千里倍益康医疗科技股份有限公司	설립일	2006-03-03
분야	헬스 케어 제품 개발	상장교역소	베이징증권거래소

획득 영예 증서

- 국가첨단기술기업(쓰촨성과기청 인증)
- 국내외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외관특허 400 여건 획득
- ISO9001 국제 품질 시스템 인증 통과
- ISO13485 의료기기 국제 품질 시스템 인증 통과
- 쓰촨성 전정특신 기업(쓰촨성경제정보청 인증)
- '중국 서부 영향력 있는 10 대 브랜드'에 선정
- ISO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규격 인증 통과

① 소개

Beoka(倍益康)는 '건강 테크놀로지·생명 수호'라는 사명을 갖고, 건강 제품의 혁신 개발에 중점을 둔 첨단과학기술 기업이다. 400 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전기 요법, 힘 요법, 온열요법, 산소 요법, 물 치료법 등의 분야를 망라한다. Beoka(倍益康)는 건강 회복 의학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R&D, 생산,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병원을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스마트화된 치료 요법과 운동 재활 전문 브랜드로 국제적 선두 위치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다.

지난 10 월 25 일, 청화구(成华区) 2022 년 "631" 핵심 프로젝트 집중 준공식에서 룡탄(龙潭)산업용 로봇 산업 기능구역에 Beoka(倍益康)의 지능형 제조 생산 기지 건설 소식을 알렸다. Beoka(倍益康)지능형 제조 생산 기지의 건설 총 투자금은 약 4 억 위안이며, 건축 면적은 62,000 m²이다. 완공 후 Beoka(倍益康)의 생산액은 약 8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②제품: 전자치료기기, 온열치료기기, 압력치료기기, 수압치료기기 4 대 계열로 30 종 가까운 제품이 있다.



사진 2) 출처: Beoka 홈페이지. 계열별 제품 예시

제품 라인업을 딱딱한 병원 의료 기기, 환자들을 위한 재활 기기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근막건은 힘에 의한 충격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 고주파 진동을 통해 근육 및 주변 연조직의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거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어 최근 시장에서 선호되는 제품이다.

소비자 그룹은 프로 운동 선수, 피트니스 애호가에서 사무직 근로자, 하위 건강,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넓어지고 있다. Beoka(倍益康)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근막건 카테고리에서 세분화 개발을 주도했다.



사진 3) 출처: Beoka 홈페이지.

Beoka(倍益康)는 지난 11월 8일 제 30회 선전추계선물박람회(深圳秋季礼品展)에 참가했는데 근막건 시리즈 외에도 휴대용 보건 산소 발생기, 휴대용 공기 지압 마사지, MINI 목 마사지기, MINI 관절 마사지기,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둔 'ACECOOL' 브랜드 상품을 공개했다. 휴대용 공기압 마사지 시스템은 무선 설계를 채택하여 번거로운 메인본체와 연결할 필요없이 메인 에어백과 바디 커버를 통합하여 편리성을 높였다. 사각지대가 없는 360° 안마는 릴렉싱 효과를 극대화했고, 고급 맞춤형 스포츠 수납가방과 매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개인용 선물로도 적합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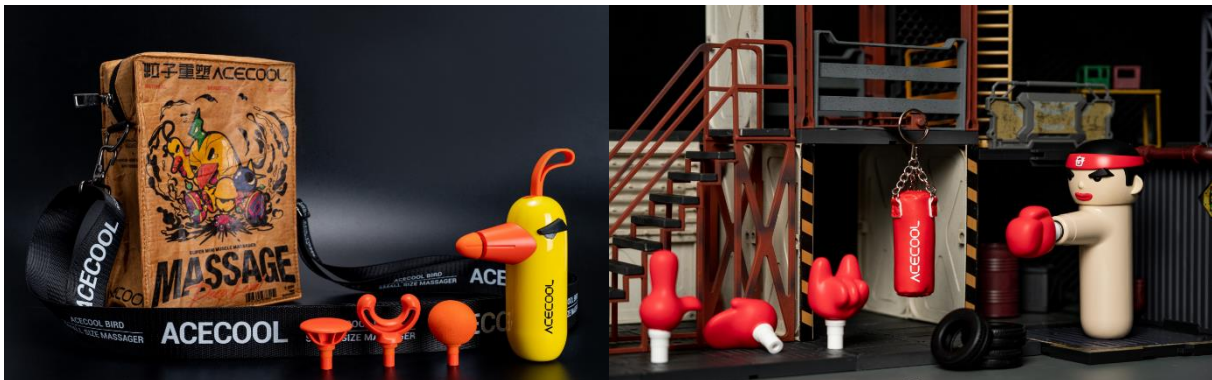


사진 4) 출처: Beoka 홈페이지. 좌-미국국제상협회(IAA)가 주관하는 Muse Creative Awards 디자인상을 수상한 딱다구리 안마건, 우-링에 있는 복서를 재현한 쿵푸보이 안마건

새로운 물리 치료 브랜드 'ACECOOL 모델(ACECOOL 粒子重塑)'은 재미있고 트렌디한 것을 좋아하는 Z 세대를 공략하여 만들었다. Beoka(倍益康)는 향후 재활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에 기반하여 계속해서 더 많은 물리 치료 범주를 확장하고 'ACECOOL 모델'과 같이 Z 세대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재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재미와 트렌디한 속성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식 홈페이지 www.okaypharm.com, www.qlbeoka.com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본 원고는 전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kyoon60@naver.com 으로 연락하시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자

22년 10월 27일 10년 만에 부회장 꼬리표를 떼 이재용 회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이었다. 화려한 취임식도, ‘제2 창업 선언’도 없었다.



(삼성의 신임회장의 이재용 모습, 이미지는 한경 코리아에서)

이 회장의 승진을 지켜본 전직 삼성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삼성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라고 했다. 과거 ‘시스템의 삼성’에 집착하거나 옛날 삼성 문화를 숭상하는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치열한 세계 경쟁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살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 기업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중국의 놀라운 성장세에 감탄하고 위기의식만 느껴야 할까? 아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삼성, 현대차, LG 등을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린 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었다.

하지만 혁신보단 당장 돈 되는 제품에 집중하다 보니 시장이 흔들리면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다. 남들보다 앞서 나갈 땐 경쟁자들이 어디쯤 오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이제 중국보다 남의 물건을 따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과거와 동일한 전략으로 중국에 맞선다면 막강한 내수 시장과 자본을 앞세운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지난해 말 세계 최대 통신칩 회사 퀄컴의 신임 CEO 스티브 몰런코프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큰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CEO 스티브 몰런코프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뒤쫓아오는 기업이 위협이라고 보지 않고, 추종자 혹은 앞으로 나의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매자로 보고 있다.

삼성의 2022 년 10 년동안 부회장을 하여 온 이재용이 신임회장이 되면서 인사말에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자"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2022 년 년초에 새해 인사말에 "디자인을 경영 혁신의 중요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용 신임회장도 퀄컴의 CEO 스티브 몰런코프처럼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미래의 삼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1993 년 도쿄에 업무 차 갔다가 삼성전자 디자인실 고문으로 있었던 후쿠다 고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삼성 디자인의 문제와 앞으로 디자인이 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길 나누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새벽 한 시까지 이어졌다.



(2015 년 모 신문사와 인터뷰하는 후쿠다 다미오(福田民郎), 일본 야후에서 가져옴)

후쿠다 타미오(福田民郎) 고문은 삼성 디자인은 컨셉이 있지만, 경영진이 디자이너에게 작은 요구까지 모두 맞춰 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영진에 응하는 삼성 디자이너를 '게이샤(매춘부)적'이라고 혹평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디자인되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제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 제품은 알게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21 세기는 이미지 시대에 명확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삼성은 사라지니 빨리 삼성의 브랜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소통하여야 한다. 라고 단언을 하였다.

당시 삼성의 대부분의 임원은 우리가 현재 삼성의 아이덴티(정체성)와 브랜드를 논할 때인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걸 빨리 만들어 하나라도 많이 파는 것이 삼성의 살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삼성을 OEM 공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다수 임원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있었다. 이건희 회장은 후쿠다 고문에게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후쿠다 고문으로 시작한 삼성의 **"처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였다. 이 메시지는 한 기업을 넘어 한국 사회와 한국 디자인계를 강타하였다.

이걸 계기로 삼성 내부에서는 디자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 놓고 삼성다운 디자인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하나씩 삼성다운 디자인과 그 철학이 담긴 제품이 세상에 나오면서 세계의 삼성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왼쪽은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노키아의 1100, 오른쪽은 스티브 잡스 애플컴퓨터 최고경영자(CEO)가 2007 년 1 월 9 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 아이폰(iPhone)을 처음 공개했다. 오른쪽은 아이폰 첫번째 모델, 아이팟 터치 디자인과 흡사하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천재나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결코 천재만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더 편하게 만족하며 사용할 수 없을까?'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2007 년의 애플의 스마트 폰이다. 그 전에는 노키아의 핸드폰이 세계시장의 60%까지 점유하였다. 두 개의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는 액정에 직접 터치하여 작동시키냐 아니며 액정 아래에 있는 키 패드를 눌러 작동하느냐의 차이였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로 애플은 난공불락의 세계 최고의 회사로, 노키아는 소리소문도 없이 사려져**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세상에 없는 상품은 하늘에서 뚝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영감을 받아 뚝딱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필요한 걸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위해 기술 등 각종 자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래에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미 나와 있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각각의 생활 문화에 맞춰주면 된다. 이것이 디자인이 할 일이다.**

사용자의 대부분은 수동적이다. 기업에서 주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불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현명한 사용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왔다. 그건 아니다. 진정으로 사용자를 위한 그들이 속으로 바라고 있는 걸 주면, 그것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 된다. 절대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법은 없다. 철저하게 사용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들 속에서 같이 느껴보면 그렇게도 원하던 세상에 없는 물건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KIC 중국 뉴스

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 가 성황리에 개최

2022 년 11 월 16 일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와 중관춘국제인큐베이터에서 공동 주최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본투글로벌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KIC 중국은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웨강아오(粤港澳), 청위(成渝) 등 4 대 도시군 위주로 협력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중관춘개발그룹 산하 중관춘 국제인큐베이터와 협력하여 로드쇼를 개최해 기업-투자기관 간의 매칭 품질을 높이고 행사 영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이징미래과학도시산업발전유한공사 천칭차이(陳慶財) 부총경리, 중국경제협력그룹 푸즈웨이(付志偉) 부총재, IG Growth Fund 투자총괄 리오(李傲)이사, PNP China 크로스보더 세지항(谢吉杭) 매니저, 노아캐피탈 리핑(李平) 총경리, 베이징의료로봇산업혁신센터 장평옌(張凤艳) 연구원 등 6 명의 바이오헬스분야 산업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온라인에서는 30 개 이상의 투자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다.



사진 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이번 행사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진수 과기정통관과 유선미 중소기업관이 참석하였다. 이진수 과기정통관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좋은 투자자와 연결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행사는 소중하다며 핵사휴먼케어, 프로메디우스 등 6 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편, 투자자들이 숨은 보석을 찾아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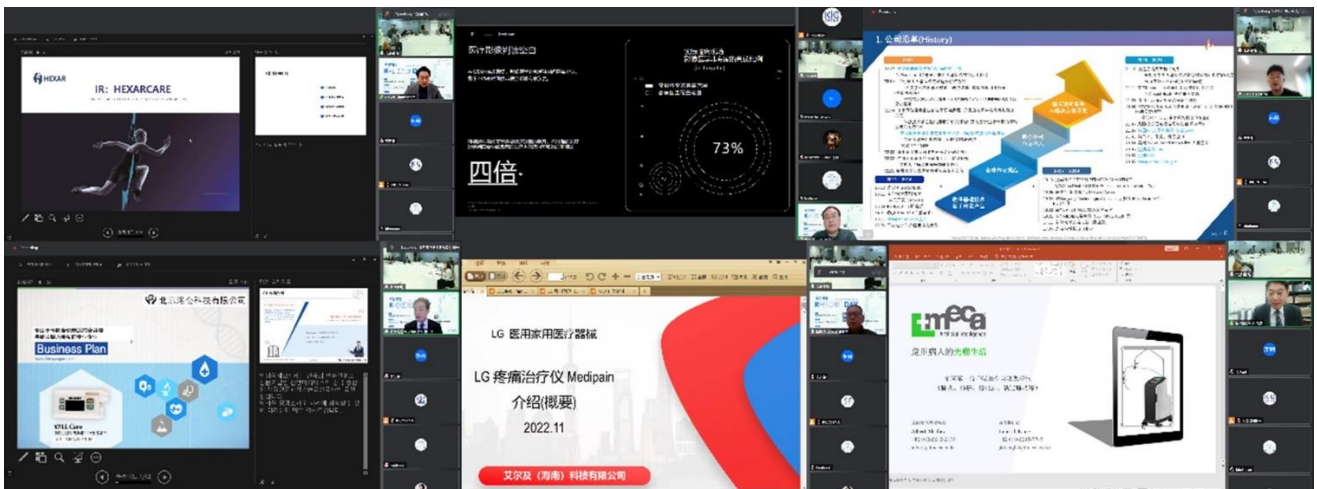


사진 2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좌), 중관춘국제인큐베이터 장징(张征) 총경리(우)

이후 행사 주최기관인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개최사에서 "KIC 중국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한국 과학기술 기업의 중국 진출과 기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 년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10 개 한국 기업의 중국법인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분기마다 개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공 2 회와 여러 사업 프로젝트 매칭 등의 실질적인 결과도 이뤄냈다. 엑셀레이션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부분의 기업 실적도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관춘국제인큐베이터를 비롯한 가장 앞선 기술창업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관춘국제인큐베이터 장징(张征) 총경리는 온·오프라인 참가자에게 중관춘국제인큐베이터의 운영 상황과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오늘 로드쇼 참가 기업이 중국의 산업 파트너와 투자 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관춘국제프론티어 혁신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고품질의 창업 공간과 전문적인 과학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친구들이 중국에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로드쇼는 헥사휴먼케어(한창수 대표), 프로메디우스(배현진 대표), 스마트사운드(이정호 대표), 신명메디에스(유일선 대표), LG 메디페인(김근수 대표), 엘메카(강정길 대표) 등 6개 기술력이 높은 유망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해 온라인 매칭, 전문가 심사, 후속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과 중국 투자자를 전문적으로 매칭하는 자리였다.

한국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는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의 대표적 행사로, 한국 혁신기업과 중국투자기관 간의 효과적인 교류와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와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KIC 중국은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메타버스, ICT 환경융합, 신에너지 및 신소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새로운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기마다 다양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로드쇼를 개최한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와 중관춘국제인큐베이터가 1년 만에 손잡고 혁신기업 로드쇼를 개최한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양 기관은 작년에 서명한 MOU 내용을 심도 있게 구현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각자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술 혁신 기업이 중국내 플랫폼과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을 지속하여 한중 혁신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이다.

2. 중관춘포럼 한중메타버스국제기술컨퍼런스 연기 공고

최근 베이징 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중관춘포럼집행위원회로부터 11 월 25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개최 예정인 중관춘포럼이 연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11 월 29 일(화)에 개최될 **중관춘포럼 한중메타버스국제기술컨퍼런스** 행사 또한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신 만큼 보답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행사가 재개될 예정이나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현재 정확한 일정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며 추후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ice of Postponement of the ZGC Forum

Origin: ZGC Forum

Time: 2022-11-22

Views: 0

In light of the recent epidemic developments in Beijing and nationwide, the Executive Committee of ZGC Forum has decided upon careful deliberation to postpone the ZGC Forum (scheduled from November 25th to 30th, 2022) until next year. The exact dates will be announced in due time.

We sincere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e postponement may cause. We will continue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forum and ensure relevant service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thanks to guests, exhibitors, friends from the media, and other participants from all sectors of society for your attention and support to the ZGC Forum.

The Executive Committee Office of ZGC Forum

November 22nd, 2022

주간 중국 창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메일: info@kicchina.org
홈페이지: www.kicchina.org
전화: +86-10-6780-8840